

한 땀 한 땀 전통脈 바느질

동국대 사회교육원 전통자수반 칠조 가사 조성



2월 24일 동국대학교 특강에서 유희순 교수가 일광·월광을 설명하고 있다.

손바느질로 이어지는 전통가사

부처님께서 몸소 보인 인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가사는 수행자들의 의식복이며 법복이다.

손바느질로 전통 가사의 맥을 잇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자수반(교수 유희순)이 2월 한 달 동안 겨울방학 특강으로 전통가사연구회 정지상 원장의 강의를 마련해 칠조 가사를 조성했다.

지금까지 가사 제작은 재봉틀 등을 활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의 맥을 잇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특강은 재봉틀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전통의 방식을 전승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3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는 수강생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조성했다. 전통 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 전통 가사 만들기

전통가사는 가사봉사를 주관하는 도편수스님의 지휘 하에 가사 마름집을 하는 양공스님, 바느질을 하는 침선스님, 염색하는 송주스님이 정성과 신심을 다해 완성한다.

전통가사를 만드는 바느질은 당침이라 한다. 흠바느질의 일종으로 가사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이다. 가사바느질은 바늘땀이 동글동글 보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의 조수(條數)를 결정해야 한다. 조수에 따라 대의(大衣) 중의(中衣) 소의(小衣)로 나뉜다. 이때 긴 조각을 장, 짧은 조각을 단이라 부르는데 조수별로 장·단의 숫자가 다르게 결정된다.

우선 대의는 정식가사인 승가리(僧伽梨)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뉜다. 상품(21조 23조 25조) 가사는 4장1단으로 5쪽을, 중품(15조 17조 19조) 가사는 3장1단으로 4쪽을, 하품(9조 11조 13조)

가사는 2장1단으로 3쪽을 마른다. 중의인 7조 울라다승은 윗옷 속옷, 소의인 5조 안타회는 하의 속옷을 말한다.

가장 큰 25조 가사는 대중사 법계에서 수할 수 있는 가사인데 125조각을 이어 만든다. 23조 가사는 115조각, 21조 가사는 105조각, 19조 가사는 76조각, 17조 가사는 68조각, 15조 가사는 60조각, 13조 가사는 39조각, 11조 가사는 33조각, 9조 가사는 27조각으로 이루어진다. 7조 울라다승은 21조각, 5조 안타회는 10조각이다.

조각들을 이어 때는 가사를 펼쳤을 때의 중심인 주복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같은 수만큼의 조각을 이어 붙인다. 그 다음에 네모로 완성된 뒤

바늘땀이 보이도록 제작 점안식 거처야 법의 인정 佛名 염송하며 통문 작업 용도 등에 따라 명칭 달라

에 난(爛)을 얹어 바깥쪽은 반당침으로 하고 안쪽은 상침으로 세 땀씩만 뜬다. 네 귀를 잔 다음 사천왕과 일광 월광을 달고 영자(印)를 품에 맞게 달아 완성시킨다. 완성된 가사는 점안식을 거처야 비로소 법의로 탄생한다.

가사의 크기는 실용성을 감안하여 적당한 크기여야 하는데 '울'에서는 '자기의 몸을 재서 적당한 분량으로 맞게만 입으면 된다'고 했다.

대가사는 위의를 갖추어 의식을 집전할 때 수하는데 가로 180cm~240cm, 세로 85cm~120cm 크기의 장방형이다. 야외법회 또는 예불을 올릴 때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하는 반가사는 보통 가로 160cm~170cm, 세로 60cm~70cm의 크기로 한다.

정지상 전통가사연구원은 "가사는 법복이기 에 한 땀 한 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가사봉사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사에 장식하는 일광(오른쪽)과 월광.

△ 통문(通門)이란?

마름집한 조각들을 연결해 만들어내는 가사는 일반 바느질과는 달리 그 연결 부위에 통문(通門)을 만든다. 통문은 꿰를 넣었을 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연결 부위마다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통문을 통해 부처님이 통하는 것이다.

가사를 수한 스님에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천왕이 외호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와 법계에 가득한 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문을 통해 다가오는 것. 이 문의 숫자는 가사의 조수에 따라 다른데 25조 대가사의 경우에는 332곳의 통문이 존재한다. 23조 가사는 306개, 21조 가사는 280개, 19조 가사는 199개, 17조 가사는 179개, 15조 가사는 159개, 13조 가사는 102개, 11조 가사는 88개, 9조 가사는 74개의 통문을 가지고 있다.

통문을 바느질 할 때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데 상품 중품 하품가사를 바느질 할 때 각각 다른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게 된다.

상품(21조 23조 25조)가사의 경우 제일금강당불, 제이아미타불, 제삼석가모니불, 제사미륵존불, 제오아촉불, 제유묘색신불, 제필묘음성불, 제팔항자광불, 제구대동지승어래불을, 중품(15조 17조 19조)가사는 제일유위불, 제이시기불, 제삼패염불, 제사구류존불, 제오구나함모니불, 제육가섭불, 제칠교주석가모니불을, 하품(9조 11조 13조)가사는 제일정정법신비로자나불, 제이원만보신노사나불, 제삼천백역외신석가모니불, 제사구품도사아미타불, 제오당래해생미륵존불 등의 불명호를 염불한다.

△ 가사의 다른 이름

가사는 용도 모양 공덕 색에 의한 명칭이 다르다. 염의(染衣) 적혈색의(赤血色衣) 괴색의(贗色衣) 간색의(間色衣)는 색깔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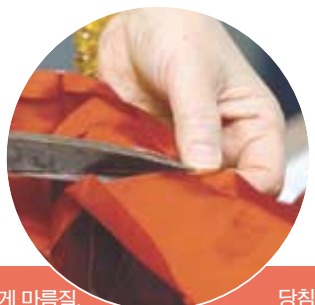
신도들이 시주함으로 복을 짓기에 복전의(福田衣), 속념을 떠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를 지녔다 해 해탈복(解脫服)이라고도 불린다.

이밖에 여법의(如法衣) 응법의(應法衣) 황마의(降魔衣) 자비복(慈悲服) 분소의(糞掃衣) 공덕의(功德衣) 라는 명칭도 가졌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천 다림질.



크기에 맞게 마름질.



당침으로 조각 잇기.



'통문' 내기.

졸업생에 '중덕' 법계 품수

육천범음대 영산반 졸업식서

육천범음대학(학장 임운)이 2월 17일 졸업식을 갖고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부터 육천범음대학의 영산반을 수강한 졸업생 가운데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중덕' 법계를 품수한다. 올해에는 22명의 졸업생 가운데 5명의 스님이 중덕 법계를 받는 혜택을 입었다.

1969년 육천범음회로 시작한 태고종의 영산재 전승교육은 1994년 육천범음대학의 설립으로 현대적인 기틀을 갖추었다. 육천범음대학의 '육천(玉泉)'은 신라 진감선사가 하동에 장건한 육천사에서 따왔다. 804년 당나라에 유학을 가 법패를 배워 온 진감선사가 귀국해 지은 육천사에서 법패를 전수했다는 진감선사 대공탑 비문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학장 임운 스님은 "육천사에서 법패를 전수한 진감선사의 전승이 우리 육천범음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육천범음대학의 이름을 삼았다"며 "동방불교대 졸업생으로 육천범음대학 영산반까지 마친 스님들에게 중덕 법계까지 주는 만큼 더 많은 수강생들이 전통 계승의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지사랑교육원 전통공예강좌

공모전 입상 · 전시 경험 강사 초빙

서울 수호사 부설 지사랑교육원(원장 이재정)이 다양한 전통 공예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과목은 전지공예 탁인형 손뜨개인형 그림부조(전통회화) 조각보 자수민화 등 7개 과목. 전국 공모전에 입상 및 다수의 전시 경험이 있는 우수 강사진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다. 수강료는 전지공예의 경우 주2회 초급 10만원이며, 다른 수업은 주1회 초급 8만원이다.

올해 초 문을 연 지사랑교육원은 당초 한지공예 전시관으로 지난해 말 개관했으나 한지공예를 보다 대중화 일반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육장소로 변신했다. 60평 규모의 대강의실과 40평 규모의 단체 체험실 등으로 마련된 교육 공간은 국내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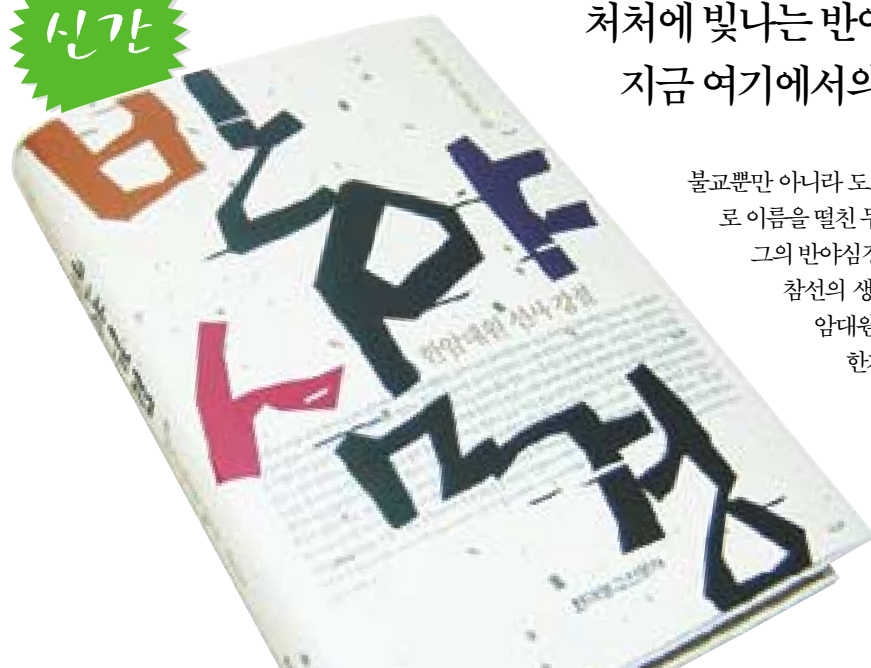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도 하며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이재정 원장은 "사찰용품 등을 한지공예 제품을 기획해 인위적인 소재가 아닌 전통기법으로 보시함에서부터 불단장식에 이르기까지 불교용품을 제품화할 생각도 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02)364-5047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처처에 빛나는 반야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동시인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뒤흔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조계종 학림사 오동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혜, 고봉, 석릉, 관음,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혜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계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계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남자를 위한 오동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문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 (02)2004-8200(대), (02)2004-8225(출판부), Fax: (02)737-0696